

홈 > 뉴스 > 뉴스

## 정읍 보성초등학교 보성인의 밤 성황리 개최

2017년 01월 03일 (화) 21:38:56

김삼옥 기자 ✉ kso1283@daum.net



정읍보성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정종관)가 '제11회 보성인의 밤' 행사를 지난 12월 17일 라마다 서울동대문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11번째 맞은 '보성인의 밤' 행사에는 김한술 정읍보성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 박영선 교장과 정준성(1회) 동문, 이종각 초대회장 및 강대양(2대), 이준팔(3대), 서명술(4대), 김병영(5대) 회장과 역대 동문회장 등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종관 회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1년 동안 총동문회장으로서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사에 임했다.

정 회장은 “모교는 기적의 전당이고 위대하게 성장할 복있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폐교직전에서 살려낸 동문님들의 큰 힘이 있고 지속적인 모교의 발전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김한술 이사장님이 계시고 모교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0명의 케이팝 연습생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동문회장 인사말, 축사, 감사패 전달, 선물전달,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서 장학재단 설립과 모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한 김한술 보성장학재단이사장에게 공로패가 전수됐고 김병영 5대 동문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더불어 정준성(1회).김연선(14회) 선배동문에게 동문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또 당일 십시일반 월 1만원씩 동문들이 참여해 후배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2016년 2월부터 시작해 12월 현재 24명의 동문이 참여해 모금된 216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으며 총동문회에서 마련한 200만원을 정읍보성장학재단에 전달했다.

한편 이어진 보성인의밤 행사는 김한술 이사장을 비롯 이종각 초대동문회장, 강대양 2대 동문회장, 제1회 정준성 동문의 축사와 함께 김생기 정읍시장,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동영상 축사가 이뤄지기도 했다.